Media Release

IFM Investors

IFM인베스터스, 사모시장 거시 전망 보고서 발표

“2027년 사모시장, AI 투자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재편될 것”

- 2027년 경제성장률은 장기 추세 밑돌 전망… 지정학적 요인과 AI 투자 사이클로 인한 공급 충격에 유의해야

- AI와 에너지 및 공급망 안보 중요성 확대에 따라 인프라 투자 기회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 한국 데이터센터 용량 2035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 예상…전력 공급 및 입지 확보가 주요 과제

(2026. 11. 19 – 서울) 호주와 영국의 퇴직연금 기금들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소유 중인 글로벌 자산운용사 IFM인베스터스(이하 IFM)는 19일 ‘2027년 사모시장 거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복잡해지는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국가와 산업, 자산군별 경제 여건 및 투자 기회의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는 예상보다 높은 회복력을 보이며 2027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은 장기 추세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지정학적 갈등과 에너지 공급 차질 등에 따른 공급 충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정책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을 웃돌고 장기 국채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AI 투자 급증으로 이를 뒷받침할 컴퓨팅 및 전력 인프라 수요가 확대되는 한편, 에너지 안보와 국가 차원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필수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구조적 변화가 이끄는 새로운 사모시장 투자 기회

보고서는 주요 구조적 변화를 뒷받침하는 자산, 특히 인프라와 자원 공급의 제약으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분야에서 유망한 투자 기회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프라 지분투자 부문에서는 AI가 주요 투자 테마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은 수요가 반드시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력 공급 능력이 AI 산업 성장의 핵심 제약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상업적 계약 구조를 갖춘 프로젝트가 이러한 수요 증가의 수혜를 누리는 데 유리할 것으로 분석했다.

각국 정부가 국가 차원의 회복탄력성 확보에 주력하면서 인프라 투자 기회도 확대되고 있다. 에너지 및 공급망 안보에 대한 우려로 자국 내 생산·공급 역량 확충이 주요 투자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국방비 지출 증가에 따라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인프라의 자금조달 및 개발 방식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지고 있다.

인프라 대출 투자 시장에서도 AI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기술기업들이 신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출을 늘리면서 디지털 및 에너지 인프라 전반에 걸쳐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다만 대출 수요가 증가할수록 전력 접근성, 신용도, 기술 섹터에 대한 집중도 등을 면밀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금리 수준은 다양한 크레딧 투자 시장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 상승 시 더 높은 이자수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업 재무구조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차입자 간 채무 상환 능력의 격차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높은 차입 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 우량 기업을 선별하는 투자 전략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주요 구조적 변화가 서로 맞물리면서 그 영향이 전통적인 자산군의 경계를 넘어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별 투자의 수익과 위험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인을 파악하고, 다양한 경제 환경에서 자산이 어떻게 움직일지 분석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AI 성장에 따른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전력 공급 제약이 핵심 과제로

한국에서도 AI 투자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데이터센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발간한 'AI DC, 건설 산업 내 영향력 확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용량은 2026년 10월 약 10GW에서 2035년 20.6GW로 두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력 공급 배정의 제약과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데이터센터 개발에 적합한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높은 금리 수준은 국내 대체투자 시장의 자본 배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레버리지 비중이 높은 투자 전략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인플레이션 방어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사모대출 및 핵심 인프라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프 치(Jeff Chee) IFM 글로벌 투자 리서치 총괄 코멘트

"2027년 경제와 투자 환경은 AI 투자 사이클의 전개 양상과 지정학적 갈등 및 에너지 공급 차질이 얼마나 빈번하게 공급 충격을 유발하는지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예측하기 어렵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예상 시나리오에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경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투자자들이 전통적으로 의존해 온 자산 간 상관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충격은 주식과 채권에 동시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어 견고한 포트폴리오 구축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전통적인 자산군 구분을 넘어 개별 투자의 성과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인을 살펴봐야 한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상승을 수익에 직접 연동하거나 전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보수적인 레버리지를 유지하는 필수 인프라 자산의 가치는 다양한 경제 시나리오에서 더욱 높아질 것이다."

알렉스 조이너(Alex Joiner) IFM 수석 이코노미스트 코멘트

"글로벌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높은 회복력을 보였지만,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27년에는 국가별 경제 성과의 차이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AI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할 잠재력이 있지만,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는 기업들이 AI 기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글로벌 경제가 공급 충격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제성장이 둔화되더라도 인플레이션과 장기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IFM인베스터스의 '2027년 사모시장 거시 전망: AI, 에너지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워진 세계(Private Markets Macro Outlook 2027: AI, energy and a less predictable world)'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

<자료문의>

IFM인베스터스 홍보대행사 엑세스커뮤니케이션

이양우 부장 (010-6889-4115/ ywlee@accesspr.co.kr)

최준석 과장 (010-3345-7713/ jschoi@accesspr.co.kr)

박예림 과장 (010-9971-9326/ ylpark@accesspr.co.kr)

신정훈 대리 (010-2696-0721/ jhshin@accesspr.co.kr)

<IFM인베스터스 소개>

IFM인베스터스는 근로자의 퇴직연금자산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목표로 1994년에 설립된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인프라 지분 및 대출, 사모 주식, 사모 대출, 부동산, 상장주식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퇴직연금기금이 소유하고 있는 IFM의 총 운용자산은 2026년 9월 30일 기준, 총 3,000억 호주달러(약

283조원)이며, 호주, 유럽, 북미 및 아시아에 위치한 18개 사무소를 통해 전 세계 900개 이상의 기관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